

전주형 착한 소비자운동 ‘함께장터’ 개최

후원금 기부 나눔 · 착한 소비자 운동 등 민생경제 회복 기대

전주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 함께 장터’는 올해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활성화 △노동자 응원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연말까지 지속 전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 일원에서 노동자 기(氣) 살리기를 주제로 이동노동자에게 브런치와 음료를 제공하며 사기를 북돋우는 ‘함께 브런치 START UP!’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동노동자들과 행사 취지를 공유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주변 가게를 중심으로 선결제를 통한 ‘착한 소비자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쿠폰을 제공해 이동 중 언제든지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함께장터’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이 이루어지



전주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 함께 장터’는 올해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활성화 △노동자 응원의 세 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지속 전개될 예정이다.

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나눔과 소비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동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1곳씩 총 2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쉼터에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이용하며, 지난 2022년 1월 운영 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4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쉼터는 전국 224개의 자치단체가 있지만 불과 80여 개라고 한다. 특히 덕진구의 쉼터는 2022년도에 이동 노동자분들이 노상에서 커피와 빵

등을 서서 해결하는 것을 시 일자리 정책과에서 인지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모 등을 통해 1억 5천만 원으로 시유지에 설치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시는 개방 화장실은 435개소에 설치하여 이동 중 용변 등 해소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노무 맞춤형 상담 지원뿐 아니라 고용 및 산재 관련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안전 캠페인 등 30여 차례의 프로그램을 통해 2000여 명의 이동노동자에게 아랑 안전띠와 안전 장갑, 여름철 쿨토시 등 각종 안전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날 행사에 참여한 한 대리운전 기사는 “어려운 시기에 이동노동자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런 응원사업이 앞으로 더 꾸준히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속의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는 지난 4년간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국민 3명 중 1명 반려식물 키워

농진청,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 전국 단위 조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인구수, 산업 규모 등의 정량적 지표를 분석한 자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전국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화분 등에 심겨 실내 공간이나 집 앞 마당에서 관리받는 ‘의존형 반려식물’과 △정원이나 숲속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독립형 반려식물’로 구분하고 1개월 동안 식물과 교감했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했는지를 항목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를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확산하면 국내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40대 13.2%, 50대 15.0%, 60대 이상 34.6%로, 젊은 세대에서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



이 많았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장소로는 실내가 90.2%로 가장 많았고, 마당(13.2%), 정원(10.7%), 숲(1.2%)이 뒤를 이었다.

반려식물 구매 비용과 기르는 기간, 식물 관리 비용을 추산한 결과,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총 2조 4,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물 자체 산업이 1조 8,569억 원, △화분 배양토, 영양제 등 관리에 필요한 연관 산업 시장은 1조 2,359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식물 유형(실내, 마당, 정원, 숲)으로 보면 실내식물 연관 산업 규모와 자체 산업 규모가 각각 689억 원(55.7%), 607억 원(51.2%)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농촌진흥청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반려식물 기르기가 단순 취미를 넘어 국민 생활문화 일부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욱기 기자

도,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13일까지 도청서 제품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함께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슬기로운 소비자생활, 찾아가는 소비자정보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 상품 비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홍보, 공정무역 및 친환경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며, 도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은 1962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선언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됐으며,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이를 기념하고 있다.

이날을 기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비자 권리 및 책임, 소비자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 및 친환경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가공품 육성”

쌀 가공제품 출시 · K-라이스페스타 참가 · MBC 예능과 협력 등 다양한 사업 전개

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감성적인 존재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길로 만들어진 밥상 가족과 함께 나누는 설날 떡국,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먹는 전통 떡... 이러한 순간들은 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쌀은 이러한 감성을 담아내며,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문화와 역사, 정체성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전년 대비 0.6kg(1.1%) 감소했다. 198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4년(120.5kg)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감소는 서구화된 식문화에 따른 것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등 식습관 변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반면, 쌀 가공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쌀가공식품 소비량은 87만 3,363톤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밥’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쌀 가공식품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북농협은 쌀 소비를 확대하고 쌀가공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쌀 가공제품 출시 △K-라이스페스타 참가 △MBC예능과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농협의 현미누룽지, 익산농협의 찰쌀떡, 공덕농협의 떡국떡, 동갑제농협 쌀떡볶이 등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적인 쌀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MZ세대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특히, 익산농협 생크림찰쌀떡은 젊은 층의 입맛을 겨냥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모아가 공제제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있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2024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참가하여 전북 쌀가공품을 홍보하였다. 이 행사에서 전북 전통주 업체 4곳이 수상하며 전국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또한 전북농협도 지역본부 경진대회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농협은 지난해 MBC예능프로그램 ‘시골마을 이장’과 협업을 추진했다. ‘시골마을 이장

우’는 김제 폐 양조장을 재생시키고 막걸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농협은 김제 지역 청정 쌀을 공급해 ‘죽산 막걸리’ 제품 출시를 지원했다. 현재 ‘죽산 막걸리’는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쌀 가공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판로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기존 쌀 가공제품에 더해 가루쌀빵, 쌀라면, 쌀 막걸리 등 많은 상품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 및 개발 중이다.

또한 쌀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개척도 모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Food(케이푸드) 열풍을 활용해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지원하여 전북 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전통주업체와 협업(MOU)하여 전북지역 쌀 전용 전통주를 출시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전통주를 통해 전북의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상품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중기중앙회, 민주 산자중기위 · 기재위 위원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 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기문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 6명이 자리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교흥 · 배준용 수석부회장 △심승일 · 노상철 · 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님께서 대표 발의한 만큼 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

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도입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